

언어의 게임을 하는 아티스트를 만났다. 여러 번 겪은 일인지라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궁금했으며 스스로에게도 자문하게 된다.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이 언어를 극복하게 되고 온전하게 손가락이 만들어낸 결과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. 현대미술이란 등반코스가 있고 거기에 베이스캠프, 캠프 1,2,3,4.....그리고 정상이란 것이 있다면 언어는 캠프 1-3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극복의 대상 같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. 언어가 재료라고 한다면 변상환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들에서 슬기롭게 '잉여'라는 원두를 선택하고 그것을 잘 볶아내어 제법 향기가 좋은 커피를 드립할 줄 아는 바리스타 같다는 생각을 했다.

공동체가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선택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. 그 가치가 품고 있는 정당성 때문에 선택된 가치의 품질을 좀 더 엄격히 가늠해보기 전에 그 선택이 온전히 그 사회에 만연할 때가 있는데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칠해지는 녹색 페인트가 그 중 하나다. 빌딩 숲의 도시 안에 '녹색'이 발화시키는 상징체계는 다른 수많은 녹색들 가운데 유독 천하기 그지없는 '그 녹색'을 정당화시킨다. 변상환은 하필이면 그 녹색을 이용했다. 그가 선택한 다른 몇 가지 기호의 조합위에 그 녹색을 마치 위장색 같이 도포한 뒤 갤러리라는 마법의 공간에 스웁 놓아둠으로서 관객이 한동안 그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.

그가 조각해놓은 '조각'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온갖 첨단 제조기술이 범람하는 시대에 만들어 놓은 물건치고는 다소 어눌해 보인다. 같은 값이면 그 따위 소주병, 매끈하고 정교해 보이게 만드는 것쯤이야 "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" 우스울 수 있을 텐데 말이다. 그렇지만 그 녹색페인트 뒤에 숨어있는 물질이 플로랄폼(Floral foam)이란 것을 전시장에 비치된 인쇄물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왜 매끈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해하게 되면서 첫 번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장치를 발견한다. 물을 빨아드리는 물건 위에 방수도장이라.....

약간 다른 연산이 적용된 경우일 수 있으나 내가 일상에서 흔히 발견하는 이런 아이러니는 식당을 방문했을 때 그 식당의 주방에 비치된 업소용 냉장고위에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[Stainless Steel-Stainless Steel-Stainless Steel-]이란 텍스트가 인쇄된 비닐커버를 매우 오랫동안 벗겨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. 그 커버를 벗겨내야지만 비로소 그 냉장고의 제조사가 애써 만들어낸 냉장고의 표면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데도 식당주인은 그 냉장고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영원히 그 커버를 벗겨내지 않고 사용한다.

다시 변상환으로 돌아가서, 소주병 이외의 다른 수수께끼의 오브제를 들여다본다. 적어도 이 아티스트가 물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다른 관계항 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했다면 나머지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재미는 온전히 관객의 몫이다.

Joseph Kosuth가 그의 '문제작'을 처음 소개했을 때 아마 당시 미술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포르노그래피를 목도하는 듯 당혹스러웠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. 언어는 그만큼 파괴적이고 거칠다. 물론 현대의 아티스트들은 그 거친 야생마를 지혜롭고 세련되게 다루고 있으며 관객들이 그것이 언어인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잘 위장하는 법을 알고 있다. 변상환은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 한번은 겪어야할 로데오를 시작한 작가 같아 보인다. 매우 위태로워 보이지만 일단 말 등 위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그 말이 숨을 고르기 전 까지 말 위에 있거나

혹은 떨어져야 될 지도 모른다. 기왕지사 말에 올라탄 만큼 나는 그 '호사'를 즐기길 바란다. 만에 하나 그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더라도 그것이 변상환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작가와와 만남, 그리고 그의 이전 작업들이 가지는 다양성을 통해 확인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'용기'가 있지 않은가.

박지훈